

주요연사

고든브라운



前 영국 총리, UN 교육 특사

고든브라운은 영국 전 러리아, UN의 교육 특사이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영국 총리를 지냈다. 2009년 린던 G20 정상회의에서 제2의 대공동을 예측하고, 그 피해를 대비하는 정책을 입안한 것으로 유명하다. 1983년에 노동당 하원의원을 시작으로 재무장관과 산업통상장관을 거쳐 경제 정책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현재는 글로벌 교육 특사와 글로벌 교육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주요연사

이주호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 前 교육부장관

이주호가 전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10년 AI, 인성과 학교 교육은 교사가 담당한다는 HTHT(High Touch High Tech) 교육을 제창하면서 AI 교육의 글로벌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전 장관은 유엔특사 고든 브라운과 함께 글로벌 교육재정위원회의 이사로 활동하고,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를 기반에서는 세계 7억명의 저개발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교육기회확대를 위해 AI 교육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Sie (International Initiative for Impact Evaluation) 이사, Education Workforce Initiative (EWI) 의장 등 세계 교육계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교육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수잔 호프굿



세계교원단체총연맹 회장

수잔 호프굿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교원 단체인 세계교원단체총연맹 회장이자 호주교원조합 사무총장이다. 수잔 호프굿은 2009년에 세계교원단체총연맹 회장이 되었으며 2011년과 2015년 회장으로 재임하였다. 최근에는 2010년 7월 베트남에서 개최된 세계교원단체총연맹 세계교원회에서 회장으로 재임하였다. 수잔 호프굿은 빅데이터와 중학교에서 수학과 기초 과정을 가르치던 교사이다. 그녀는 교사연합회에 가입하였으며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이후에는 연합 위원이 되었다. 그녀는 2006년에 공립학교, 유아교육, 기술전문대학의 선생님들과 교육 종사자들로 구성된 호주교원조합 최초 여성 사무총장에 선임되었다. 그녀는 호주노조협의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그녀는 공정하고 사회적으로 정당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

웬디 콤



티치 포 알리에스 CEO 및 공동창업자

웬디 콤은 모든 아이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동 리더십을 일궈내는 독립 기구들의 네트워크인 Teach For All의 CEO이자 공동창업자이다. 2007년에 Teach For All을 창립하기 전, 그녀는 미국의 교육 불평등과 맞설 힘을 모으기 위해 1989년에 Teach For America를 설립하였다.

이에 아시아 대학생들이 자원봉사자가 되어 미국 전역의 저소득층 학생들의 멘토를 자처하고 나섰다. 웬디는 미국의 아이들에게 보다 큰 성장의 기회를 주기 위해 Teach For America를 24년간 이끌었다. 교육 불평등에 대한 Teach For America의 접근방식을 도입하고 싶어하는 전 세계의 사회적 기업가들의 니즈에 대응하고, 함께 협업하기 위해 Teach For All을 설립하였다.

주요연사

안드레아스 솔라이히



OECD 교육역량위원회 위원장

스탠포드대 후버 연구소 선임연구원

안드레아스 솔라이히는 OECD 교육역량위원회 위원장이다.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를 도입하고 시행했으며, 교육 정책과 실행을 변화시키기 위해 전 국제와 문화에 걸친 정책 입안자, 연구원, 교육자들의 글로벌 플랫폼의 장이 되어주는 국제기구의 수준과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그는 교육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년동안 장관 및 교육계 리더들과 협력했다. OECD에 합류하기 전,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에서 분석 책임자로 근무했다. 독일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호주에서 수학과 통계학을 전공했다. ‘모범적인 민주적 참여의 공유’와 ‘독일 연방과학국의 첫번째 대통령의 이름의 “테오도어 호이스”상을 포함한 많은 훈장과 상을 받았다.

라이언 베이커



미 펜실베이니아아대 빅데이터 센터장

라이언 베이커는 펜실베이니아아대 학습분석 및 빅데이터 센터장이자 부교수이다. 그는 온라인 및 협업 학습과 학습을 중심으로 연구하며, 오늘날 활용할 수 있으면서 미래 학생의 학습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실증 가능한 지표를 개발하여 노력한다. 여러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의 학생 참여도를 자동적으로 감지하는 학습 모델을 개발했다. 베이커는 학생 참여도의 현장 관찰에 관한 관심과 프로토콜과 어플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는 미국 160명의 연구자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의 개발을 도운 예측 분석 모듈은 수천 명의 학생을 향한 평가 기준이다. 총장 취임 전에는 콜롬비아 대학의 부총장으로서 대학의 지적 재산권들을 법안과 시킨 콜롬비아 테크놀로지 벤처스 (Columbia Technology Ventures)를 설립했다. 또 미국 중앙정보국인 CIA의 벤처 투자 기구인 'In-Q-Tel'의 설립 및 초기 자금 유치에 관여함으로 현재까지 In-Q-Tel의 이사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아리조나주립대학 총장으로 선출된 이후 새로운 미국 대학 모델을 개발하여 공동 연구중심대학 재설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 십 년간 그의 리더십 하에 아리조나주립대학은 새로운 미국 대학 모델에 기반한 재개념화를 꾀함으로서 실현해왔으며, 그 결과 세계적인 학술연구 중심 대학으로 부상했다.

제2회 Computer-Based Learning in Context의 편집자이자 두 저널의 부주필이며, MOOC Replication Framework(MORF)의 공동 이사이다. Pittsburg Science of Learning Center DataShop의 첫 기술 감독이었다. 300명이 넘는 동료들과 논문을 공동 집필했는데, 이는 15,000명 이상 인용됐다.

주요연사

장영준



뤼이드(Riid) CEO

이주호가 전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10년 AI, 인성과 학교 교육은 교사가 담당한다는 HTHT(High Touch High Tech) 교육을 제창하면서 AI 교육의 글로벌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전 장관은 유엔특사 고든 브라운과 함께 글로벌 교육재정위원회의 이사로 활동하고,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를 기반에서는 세계 7억명의 저개발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교육기회확대를 위해 AI 교육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Sie (International Initiative for Impact Evaluation) 이사, Education Workforce Initiative (EWI) 의장 등 세계 교육계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교육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수잔 호프굿



세계교원단체총연맹 회장

수잔 호프굿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교원 단체인 세계교원단체총연맹 회장이자 호주교원조합 사무총장이다. 수잔 호프굿은 2009년에 세계교원단체총연맹 회장이 되었으며 2011년과 2015년 회장으로 재임하였다. 최근에는 2010년 7월 베트남에서 개최된 세계교원단체총연맹 세계교원회에서 회장으로 재임하였다. 수잔 호프굿은 빅데이터와 중학교에서 수학과 기초 과정을 가르치던 교사이다. 그녀는 교사연합회에 가입하였으며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이후에는 연합 위원이 되었다. 그녀는 2006년에 공립학교, 유아교육, 기술전문대학의 선생님들과 교육 종사자들로 구성된 호주교원조합 최초 여성 사무총장에 선임되었다. 그녀는 호주노조협의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그녀는 공정하고 사회적으로 정당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

웬디 콤



티치 포 알리에스 CEO 및 공동창업자

웬디 콤은 모든 아이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동 리더십을 일궈내는 독립 기구들의 네트워크인 Teach For All의 CEO이자 공동창업자이다. 2007년에 Teach For All을 창립하기 전, 그녀는 미국의 교육 불평등과 맞설 힘을 모으기 위해 1989년에 Teach For America를 설립하였다.

이에 아시아 대학생들이 자원봉사자가 되어 미국 전역의 저소득층 학생들의 멘토를 자처하고 나섰다. 웬디는 미국의 아이들에게 보다 큰 성장의 기회를 주기 위해 Teach For America를 24년간 이끌었다. 교육 불평등에 대한 Teach For America의 접근방식을 도입하고 싶어하는 전 세계의 사회적 기업가들의 니즈에 대응하고, 함께 협업하기 위해 Teach For All을 설립하였다.

주요연사

장영준



뤼이드(Riid) CEO

이주호가 전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10년 AI, 인성과 학교 교육은 교사가 담당한다는 HTHT(High Touch High Tech) 교육을 제창하면서 AI 교육의 글로벌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전 장관은 유엔특사 고든 브라운과 함께 글로벌 교육재정위원회의 이사로 활동하고,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를 기반에서는 세계 7억명의 저개발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교육기회확대를 위해 AI 교육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Sie (International Initiative for Impact Evaluation) 이사, Education Workforce Initiative (EWI) 의장 등 세계 교육계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교육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수잔 호프굿



세계교원단체총연맹 회장

수잔 호프굿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교원 단체인 세계교원단체총연맹 회장이자 호주교원조합 사무총장이다. 수잔 호프굿은 2009년에 세계교원단체총연맹 회장이 되었으며 2011년과 2015년 회장으로 재임하였다. 최근에는 2010년 7월 베트남에서 개최된 세계교원단체총연맹 세계교원회에서 회장으로 재임하였다. 수잔 호프굿은 빅데이터와 중학교에서 수학과 기초 과정을 가르치던 교사이다. 그녀는 교사연합회에 가입하였으며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이후에는 연합 위원이 되었다. 그녀는 2006년에 공립학교, 유아교육, 기술전문대학의 선생님들과 교육 종사자들로 구성된 호주교원조합 최초 여성 사무총장에 선임되었다. 그녀는 호주노조협의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그녀는 공정하고 사회적으로 정당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

웬디 콤



티치 포 알리에스 CEO 및 공동창업자

웬디 콤은 모든 아이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동 리더십을 일궈내는 독립 기구들의 네트워크인 Teach For All의 CEO이자 공동창업자이다. 2007년에 Teach For All을 창립하기 전, 그녀는 미국의 교육 불평등과 맞설 힘을 모으기 위해 1989년에 Teach For America를 설립하였다.

이에 아시아 대학생들이 자원봉사자가 되어 미국 전역의 저소득층 학생들의 멘토를 자처하고 나섰다. 웬디는 미국의 아이들에게 보다 큰 성장의 기회를 주기 위해 Teach For America를 24년간 이끌었다. 교육 불평등에 대한 Teach For America의 접근방식을 도입하고 싶어하는 전 세계의 사회적 기업가들의 니즈에 대응하고, 함께 협업하기 위해 Teach For All을 설립하였다.

주요연사

장영준



뤼이드(Riid) CEO

이주호가 전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10년 AI, 인성과 학교 교육은 교사가 담당한다는 HTHT(High Touch High Tech) 교육을 제창하면서 AI 교육의 글로벌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전 장관은 유엔특사 고든 브라운과 함께 글로벌 교육재정위원회의 이사로 활동하고,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를 기반에서는 세계 7억명의 저개발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교육기회확대를 위해 AI 교육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Sie (International Initiative for Impact Evaluation) 이사, Education Workforce Initiative (EWI) 의장 등 세계 교육계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교육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수잔 호프굿



세계교원단체총연맹 회장

수잔 호프굿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교원 단체인 세계교원단체총연맹 회장이자 호주교원조합 사무총장이다. 수잔 호프굿은 2009년에 세계교원단체총연맹 회장이 되었으며 2011년과 2015년 회장으로 재임하였다. 최근에는 2010년 7월 베트남에서 개최된 세계교원단체총연맹 세계교원회에서 회장으로 재임하였다. 수잔 호프굿은 빅데이터와 중학교에서 수학과 기초 과정을 가르치던 교사이다. 그녀는 교사연합회에 가입하였으며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이후에는 연합 위원이 되었다. 그녀는 2006년에 공립학교, 유아교육, 기술전문대학의 선생님들과 교육 종사자들로 구성된 호주교원조합 최초 여성 사무총장에 선임되었다. 그녀는 호주노조협의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그녀는 공정하고 사회적으로 정당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

웬디 콤



티치 포 알리에스 CEO 및 공동창업자

웬디 콤은 모든 아이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동 리더십을 일궈내는 독립 기구들의 네트워크인 Teach For All의 CEO이자 공동창업자이다. 2007년에 Teach For All을 창립하기 전, 그녀는 미국의 교육 불평등과 맞설 힘을 모으기 위해 1989년에 Teach For America를 설립하였다.

이에 아시아 대학생들이 자원봉사자가 되어 미국 전역의 저소득층 학생들의 멘토를 자처하고 나섰다. 웬디는 미국의 아이들에게 보다 큰 성장의 기회를 주기 위해 Teach For America를 24년간 이끌었다. 교육 불평등에 대한 Teach For America의 접근방식을 도입하고 싶어하는 전 세계의 사회적 기업가들의 니즈에 대응하고, 함께 협업하기 위해 Teach For All을 설립하였다.

주요연사

장영준



뤼이드(Riid) CEO

이주호가 전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10년 AI, 인성과 학교 교육은 교사가 담당한다는 HTHT(High Touch High Tech) 교육을 제창하면서 AI 교육의 글로벌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전 장관은 유엔특사 고든 브라운과 함께 글로벌 교육재정위원회의 이사로 활동하고,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를 기반에서는 세계 7억명의 저개발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교육기회확대를 위해 AI 교육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Sie (International Initiative for Impact Evaluation) 이사, Education Workforce Initiative (EWI) 의장 등 세계 교육계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교육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수잔 호프굿



세계교원단체총연맹 회장

수잔 호프굿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교원 단체인 세계교원단체총연맹 회장이자 호주교원조합 사무총장이다. 수잔 호프굿은 2009년에 세계교원단체총연맹 회장이 되었으며 2011년과 2015년 회장으로 재임하였다. 최근에는 2010년 7월 베트남에서 개최된 세계교원단체총연맹 세계교원회에서 회장으로 재임하였다. 수잔 호프굿은 빅데이터와 중학교에서 수학과 기초 과정을 가르치던 교사이다. 그녀는 교사연합회에 가입하였으며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이후에는 연합 위원이 되었다. 그녀는 2006년에 공립학교, 유아교육, 기술전문대학의 선생님들과 교육 종사자들로 구성된 호주교원조합 최초 여성 사무총장에 선임되었다. 그녀는 호주노조협의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그녀는 공정하고 사회적으로 정당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

웬디 콤



티치 포 알리에스 CEO 및 공동창업자

웬디 콤은 모든 아이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동 리더십을 일궈내는 독립 기구들의 네트워크인 Teach For All의 CEO이자 공동창업자이다. 2007년